

음악분석을 통한 영화 《디아워스》의 재해석:
장3화음과 단3화음의 내러티브적 의미

1. 들어가면서

최근 영화음악학계에서는 영화의 내러티브와 영화음악 간의 관계 혹은 영화음악의 내러티브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이론가 뉴마이어(David Neumeyer)는 영화음악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학자로서,¹⁾ 2001년에 출판된 버홀러(James Buhler)와의 공동논문에서 영화음악을 분석적 그리고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1930-60년대의 몇몇 할리우드 영화(Hollywood Film)에 적용하였다.²⁾ 이들은 영화음악을 음조, 조성관계, 형식, 유도동기(Leitmotif) 등의 서양음악에서 전통적으로 분석하는 매개변수를 영화음악에 적용하여 영화음악 분석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뉴마이어는 올해 8월에 출판된 저서에서, 영화에서의 음악은 내러티브와 영상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며 분석을 통하여 영화의 경험이 형태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³⁾ 뉴마이어 이외에도 최근 북미권에서는 영화의 내러티브 전개의 이해를 돕는 수단으로 영화음악을 쉐커식 분석(Schenkerian Analysis)과 네오리만이론(neo-Riemannian Theory)에 적용하는 등, 영화음악은 이제 분석에 있어서도 큰 레퍼토리가 되고 있다.⁴⁾

본 논문에서는 2002년에 개봉된 영화 《디아워스》(*The Hours*)의 음악을 분석함으로써 내러티브와 음악 간의 상호 연관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디아워스》는 커닝햄(Michael Cunningham, 1952-)의 소설 《디아워스》를 영화한 작품으로, 달드리(Stephen Daldry, 1961-)가 감독을 맡았으며, 영화음악은 글래스(Philip Glass, 1937-)가 작곡하였다. 이 영화는 세 명의 여배우들 즉 키드먼(Nicole Kidman, 1967-), 무어(Julianne Moore, 1960-), 스트립(Meryl Streep, 1949-)이 각각 버지니아, 로라, 클래리사의 역할을 맡은 심리영화이다. 영화

- 1) 뉴마이어는 쉐커식 분석으로 알려진 북미권의 대표적 음악이론가이지만, 최근 10년 동안에는 영화음악 분석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올해 10월 24일에는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KSMT)와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학술대회 <음악과 영화>에서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 2) David Neumeyer and James Buhler, "Analytical and Interpretive Approaches to Film Music (I): Analyzing the Music," in *Film Music: Critical Approaches*, ed. Kevin Donnell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1), 16-38.
- 3) David Neumeyer, *Meaning and Interpretations of Music in Cinem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5). 뉴마이어는 "말소리 중심의 영화"(Vococentric Cinema)에서 구성되는 내러티브와 영상, 그리고 음악에 대한 관계를 위계적으로 설명한다. 즉, 영화에서는 언제나 대사 즉 내러티브가 우선이 되며, 이러한 내러티브의 전개는 시각적인 영상에 의하여 나타나고, 또한 영상에 의하여 전개된 내러티브는 음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영화음악의 내러티브적 기능을 위하여 음악분석의 기준을 제시한다.
- 4) 영화음악을 쉐커식 분석에 적용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David Neumeyer, "Tonal Design and Narrative in Film Music: Bernard Herrmann's *A Portrait of Hitch* and *The Trouble With Harry*," *Indiana Theory Review* 9 (1998), 87-123; Ronald Rodman, "Tonal Design and the Aesthetic of Pastiche in Herbert Stothart's *Maytime*," in *Music and Cinema*, ed. James Buhler, Caryl Flinn, and David Neumeyer (New Hampshire: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2000), 187-206; _____, "'There's No Place Like Home': Tonal Closure and Design in *The Wizard of Oz*," *Indiana Theory Review* 19(1998), 125-43. 네오리만이론을 적용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Scott Murphy, "Transformational Theory and the Analysis of Film Music," in *The Oxford Handbook of Film Music Studies*, ed. David Neumey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471-499; Frank Lehman, "Transformational Analysis and the Representation of Genius in Film Music," *Music Theory Spectrum* 35/1(2013), 1-22.

에서 이들 세 여인은 서로 다른 시대와 공간,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 살아가는 인물들로 이들 간의 연관성은 전혀 없는 듯 보인다. 즉, 버지니아는 1923년 영국 석세스(Sussex)에서 《달러웨이 부인》(*Mrs. Dalloway*, 1925)을 집필 중인 인물로, 《달러웨이 부인》의 실제 저자이다. 로라는 195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서 사는 평범한 가정 주부이며, 또한 클래리사는 2001년 미국 뉴욕(New York)에서 출판사 편집장으로 일하는 여인이다. 이처럼 이들 주인공들은 상이하게 다르지만, 흥미롭게도 이 영화에서는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하루"라는 동일한 "시간" 흐름 속에서 사건을 전개시킴에 따라 영화의 응집성을 성취한다.

내러티브적에서 볼 때에도 이들 세 명의 주인공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연관성을 갖는다. 첫째, 이들 주인공들은 모두 울프(Adeline Virginia Stephen Woolf, 1882-1941)의 소설 《달러웨이 부인》과 연관되어 있다. 버지니아는 《달러웨이 부인》의 저자이며 로라는 《달러웨이 부인》을 읽는 독자, 클래리사는 옛 연인 리차드로부터 "달러웨이 부인"으로 불리는 주인공이다. 둘째, 이들 세 주인공들은 영화 안에서 모두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연관되어 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버지니아는 삶과 죽음에 대하여 끊임없이 되묻는 주인공으로, 결국 자살을 선택한다. 로라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들 리차드의 어머니로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보이지만, 소설 《달러웨이 부인》을 읽는 중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자살을 시도하는 여인이다. 결국 로라는 남편의 생일파티를 위하여 케이크를 만들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한다. 그러나 자살은 실패로 돌아가고 둘째의 출산 후 자신의 인생을 찾겠다는 결심과 함께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남편의 생일파티를 진행한다. 클래리사는 동성연인 샬리의 동거녀이지만, 자신의 딸의 아버지이자 옛 연인 리차드를 떠나지 못하는 여인이다. 리차드는 클래리사가 보는 가운데서 창밖으로 뛰어내려 자살한다. 이처럼 이들 주인공들은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살고 있는 대조적 인물들이지만 이들 세 명은 소설 《달러웨이 부인》,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연관된다.

특별히 삶과 죽음은 영화의 시작부터 결말까지 끊임없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삶과 죽음이 서로 대조적인 개념임에는 분명하지만, 삶과 죽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영화에서 버지니아의 죽음은 세상을 마감하는 마지막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삶으로 연결되며 결국 세월(Hours)을 만드는 것이다.⁵⁾ 즉, 세 명의 주인공들이 서로 다른 인물이지만 소설 《달러웨이 부인》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삶과 죽음의 주제 역시 서로 대조되는 개념인 동시에 연관되어 있다.

영화에서 보여지는 삶과 죽음에 대한 심리적 갈등은 음악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된다. 이 영화에서 14개의 배경음악(background music)을 작곡한 글래스는 리듬, 화성, 선율에 있어 변화보다는 반복적 기법을 사용함에 따라, 음악이 영화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세 여인의 심리적 갈등을 성공적으로 묘사한다.⁶⁾ 국내 몇몇 음악학자들은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배경음악이 주인공들의 심리적 변화와 관계있음을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⁷⁾

- 5) 죽음에 대한 버지니아의 철학은 영화 중 두 개의 장면에서 나타난다. 첫째는 버지니아의 새의 죽은 앞에서 삶과 죽음에 대하여 묘사하는 장면이다: "죽으면 다시 우리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간다." 두 번째 장면은 남편과의 대화에서 나타난다: "(죽음은) 남은 사람들에게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있다."
- 6) 영화음악 작곡가인 이재신은 그의 저서에서, 배경음악의 경우 주인공의 심리와 분위기 등에 적합하게 작곡되어야 하며, 특별히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주는 영화에서는 음악보다는 주인공들의 심리 표현이 더 강조되어야 함에 따라 음악이 영상에 방해받지 않도록 변화에 조심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재신은 이를 음악의 "불가청성"이라고 정의한다. 이재신, 『이재신의 영화음악론』 (서울: 해드림, 2013), 122-128.
- 7) 《디아워스》의 영화음악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로 리듬과 화성진행을 중심으로

필자는 이 영화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면상의 7화음(apparent 7th chord)에 주목하였으며,⁸⁾ 이 7화음이 영화가 진행될수록 공통음 관계에 있는 장3화음과 단3화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보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장3화음과 단3화음이 삶과 죽음에 대한 내적 갈등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즉 장3화음과 단3화음의 대조적 음향은 삶과 죽음의 대조를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최대한의 공통음 관계에 있음으로써 삶과 죽음의 연관성까지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영화의 배경음악에서 나타나는 표면상의 7화음과 장단3화음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화음을 영화 속에서의 심리적 갈등과 연관시킴으로써 음악 안에서의 내러티브를 해석하고자 한다.

2. 영화 《디아워스》 분석

글래스는 《디아워스》에서 모두 14개의 배경음악을 작곡하였다.⁹⁾ 그러나 이들 음악 중 몇몇 음악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나타나는 등 모든 음악들이 영화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14개의 음악 중 영화에서 명확하고 중요하게 사용된 아홉 개의 음악만을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¹⁰⁾ 영화는 오프닝 장면과 엔딩 장면을 제외하고는, 세 명의 주인공들에 의한 하루 동안의 사건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전개된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오프닝과 엔딩 장면의 음악을 통하여 문제 제기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며, 이후 이들 두 장면 사이에서 나타나는 음악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영화의 내러티브와 연결시킨다. 이재신은 그의 저서 『이재신의 영화음악론』(2013)에서 《디아워스》중 마지막 배경음악인 '디아워스'(The Hours)를 리듬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재신, 위의 글, 247-253. 이수일은 14개의 배경음악 중 두 개의 곡 '아침패세지'(Morning Passages)와 '디아워스'에서 나타나는 화성과 리듬패턴을 집중 분석하여 이들 패턴이 다른 곡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본다: 이수일, "Philip Glass의 영화음악 The Hours의 분석을 통한 미니멀리즘 음악 연구," 『음악교육공학』 7(2008), 147-172. 황진희와 이승연의 공동 논문에서는 세 여인의 심리 변화, 즉 우울과 슬픔의 비극적 내러티브를 반응계적 진행과 화성패턴으로 연관시킨다: 황진희, 이승연, "영화 《디아워스》(The Hours)에서의 인물심리와 화음진행의 상관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2014), 678-685.

- 8) 표면상의 7화음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 것. Edward Aldwell & Carl Schachter, *Harmony & Voice Leading* (Massachusetts: Shirmer, 2011), 460-464. 표면상의 7화음은 외형적으로만 7화음으로 보일 뿐 진정한 7화음은 아니다. 즉, 7음은 해결되어야 할 불안정한 음이 아닌 안정된 음으로 나타난다. 표면상의 7화음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1) 6음이 첨가된 3화음 (added 6th); (2) 4음이 첨가된 6화음; (3) 2음이 첨가된 보조적 46화음; (4) 윗성부의 지속음과 함께 나타나는 7화음. 이들 형태의 7화음들은 외형적으로는 근음위치, 제1전위, 제2전위, 그리고 제3전위의 7화음으로 나타나지만, 모두 경과적 혹은 보조적인 장식화음의 역할을 한다.
- 9) 14개의 배경음악은 다음과 같다: '시인의 행동'(The Poet Acts), '아침 패세지'(Morning Passages), '그녀가 해야만 하는 것'(Something She Has to Do),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For Your Own Benefit), '바네사와 체인지링(Vanessa and the Changelings)', '케이크를 만들거야'(I'm Going to Make a Cake), '반갑지 않은 친구'(An Unwelcome Friend), '죽은 이'(Dead Things), '키스'(The Kiss), '왜 죽어야 하는가?(Why Does Someone Have to Die?), '뿌리치고 도망가기'(Tearing Herself Away), '도피!(Escape)', '삶을 선택하기'(Choosing Life), '디아워스'(The Hours).
- 10)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악은 다음과 같다: '시인의 행동,' '아침 패세지,' '그녀가 해야만 하는 것,' '케이크를 만들거야,' '죽은 이,' '왜 죽어야 하는가?,' '도피!,' '삶을 선택하기,' '디아워스.' 또한 필자는 리즈만(Michael Riesman)과 뮈히러(Nico Mühly)에 의한 피아노 편곡으로 이루어진 악보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2.1. 표면상의 7화음과 장3화음, 그리고 내러티브적 의미

'시인의 행동'(The Poet A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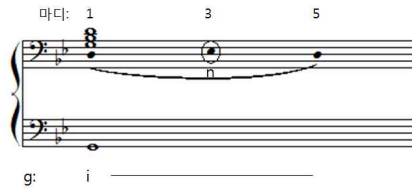
영화의 오프닝 장면은 주인공 버지니아가 강물에서 자살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예 1-1>은 이 장면에서의 주제를 보여주는 예이다. 이 음악은 영화 시작부터 인생의 절망을 묘사하며,¹¹⁾ 동시에 관객에게는 자살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킨다.

<예 1-1> "시인의 행동," 마디 1-15

15마디로 구성된 주제는 G단조의 으뜸화음으로 시작하고 마디 3에서는 이러한 G단3화음에 Eb이 첨가됨에 따라(위의 악보에서 네모로 표시) 7화음의 제1전위(Eb $\frac{6}{5}$)로 나타난다. 그러나 마디 3에서 형성된 이 7화음은 그 성격에 있어 상당히 모호하게 나타난다. 마디 3의 Eb은 강박에서 나타나고 쉼여림에서 볼 때에도 마디 1-2에서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Eb은 분명 Eb7화음의 근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Eb장3화음에 7음이 첨가된 Eb7화음의 전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7음인 D는 다음 화음에서 해결되지 않으며, 따라서 불안정한 음이 아닌 안정된 음의 역할로 나타난다. 이처럼 이 화음은 Eb의 강조에서 불구하고 Eb을 근음으로 하는 "진정한" 7화음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 화음은 "표면상의 7화음"으로서, <예 1-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G단3화음에 비화성적인 6음 혹은 부가된 6음(added 6th)으로서 Eb이 첨가된 화음으로 볼 수 있다. 즉, Eb은 으뜸화음의 연장 안에서 보조음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 11) 이 음악은 이후 장면에서 시인이자 클라리사의 옛 연인 리처드의 주제곡으로도 등장한다. 클라리사는 리처드를 책임감으로 돌보는 여인으로, 리처드를 위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리처드는 후천성 면역결핍증(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을 앓고 있는 환자로,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라고 자책하며 절망감에 빠져있다. 이처럼 '시인의 행동'은 절망감을 표현한다.

<예 1-2> “시인의 행동.” 마디 1-5의 축약형



마디 3의 Eb⁶은 표면상으로는 Eb장3화음에 7음이 첨가된 Eb7화음의 전위로 분석될 수 있겠으나, 음악적으로 볼 때 G단조의 으뜸화음의 연장 안에서 6음이 부가된 표면상의 7화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이다. 이처럼 마디 3의 화음은 Eb7화음의 전위 혹은 G단3화음에 부가된 6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화성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살하는 버지니아의 극박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자살에 대한 관객의 의문을 더욱 증폭시킨다 하겠다.

‘디아워스’(The Hours)

‘디아워스’는 영화의 엔딩 장면에서 등장한다. 이 음악은 하루를 마감하는 동시에 그동안 삶과 죽음에 대한 갈등을 보여 왔던 세 여인에 대한 결론을 보여주는 음악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엔딩 음악은 이 영화의 오프닝 장면, 즉 버지니아가 강물에서 자살하는 장면으로 되돌아가 시작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 장면은 오프닝 장면과 동일하게 재현되지만 음악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예 2>는 엔딩 음악인 ‘디아워스’의 시작부분을 보여준다. 이 음악은 오프닝 음악인 ‘시인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음악으로, 해피 엔딩을 암시하듯 F장3화음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예 2> ‘디아워스.’ 마디 1-8



이처럼 동일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시작 장면에서는 모호한 7화음을 사용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한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영화의 결론으로서 근음위치의 장3화음을 강조하고 있음은 시작과 마지막 장면의 내러티브가 음악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버지니아는 삶을 사랑하지만 삶의 끝은 죽음이며,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인물로, 그녀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삶의 시작인 것이다. 즉 그녀의 자살은 긍정적인 죽음인 것이다. 또한 시작과 마지막 장면에서의 강물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동일한 강물이다. 그러나 시작 장면에서의 강물은 단지 자살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의 강물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영화의 내러티브를 반영하기 위하여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는 모호한 표면상의 7화음 대신 근음위치의 F장3화음을 사용하고 있음은 매우 흥미롭다 하겠다.

이처럼 오프닝과 엔딩 장면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대조성을 통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오프닝 음악에서 등장한 표면상의 7화음의 정체는 무엇이며 엔딩 음악에서의 장3화음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둘째, 이들 오프닝과 엔딩 음악 사이에서는 어떠한 음악적 변화가 나타나겠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의문점에 초점을 맞추어 영화의 전개에 따른 음악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내러티브와 연결시켜 해석하고자 한다.

2.2. 장3화음과 단3화음을 통한 삶과 죽음의 내러티브

‘아침 패세지’(Morning Passages)

이 음악은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세 명의 여주인공인 버지니아, 로라, 클라리사를 등장시킨다. <예 3-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마디 1의 화음은 ‘시인의 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Eb⁶의 형태로, G단3화음이 강조되는 가운데 Eb이 근음의 역할이 아닌 부가된 6음 혹은 이탈음(Escape tone)으로 나타나는 표면상의 7화음이다.

<예 3-1> ‘아침 패세지.’ 마디 1-11



이 주제는 장면이 진행될수록 음형적으로 변주된다. 흥미롭게도 <예 3-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변주 5와 7, 그리고 코다에서는 마디 1에서 전개되었던 표면상의 7화음이 G단3화음과 Eb장3화음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들 G단3화음과 Eb장3화음은 G와 Bb를 공통음으로 하는 협화3화음으로 이들 두 화음을 결합하면 마디 1의 “Eb⁶”이 된다. 즉 ‘시인의 행동’에서 모호하게 등장하였던 “Eb⁶”은 ‘아침 패세지’에서 표면상의 7화음으로 확립되어 긴장을 만들며 또한 이러한 7화음은 최대한의 공통음 관계에 있는 G단3화음과 Eb장3화음으로 변형되고 있는 것이다.

<예 3-2> '아침 패세지.' 변주 5, 변주 7, 코다의 시작부분

변주 5 시작부분

변주 7 시작부분

코다 시작부분

'케이크를 만들거야'(I'm going to make a cake)

이 음악은 로라의 내면적 갈등을 표현한다. 미국의 평범한 가정주부처럼 보이는 로라는 사실 절망과 우울감을 갖고 있다. 남편의 생일을 맞이하여, 로라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 계획을 하지만 내면에서는 겉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자살을 생각한다. 이처럼 로라는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삶과 죽음의 갈등으로 병들어 있으며, 이러한 로라의 갈등은 <예 4-1>의 화성진행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A단3화음과 F장3화음의 교대로 표현된다. 즉, 이들 장3화음과 단3화음은 음향적으로 대조를 보이며, 이러한 대조는 삶과 죽음의 대조를 표현한다. 따라서 장3화음과 단3화음의 교대를 통한 반복은 삶과 죽음의 갈등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예 4-1> '케이크를 만들거야.' 마디 1-13

이러한 A단3화음과 F장3화음의 교대는 '아침 패세지'의 변주 3과 5, 그리고 코다에서처럼 최대한의 공통음과 한음 간의 반응진행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진행은 A단3화음이 4화음으로 시작함으로써 베이스의 선율선은 E3에서 F3의 반응관계로 나타난다. 이처럼 장3화음과

단3화음의 대조적 3화음이 최대한의 공통음 관계에 있음은 삶과 죽음 역시 대조적이지만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삶과 죽음에 대한 갈등은 음악이 전개될수록 더욱 고조된다. <예 4-2>는 주제의 등장 이후 마디 71에서 시작하는 변주를 보여주는 예로, 상성부에서는 A단3화음, 왼손에서는 F장3화음이 등장함에 따라 표면상의 7화음 즉 "F3⁴"을 보여준다. 음악이 전개되는 동안, 로라는 남편의 생일파티를 위하여 케이크를 만들 계획이며 클라리사 역시 리차드를 위한 파티를 계획한다. 로라는 생일 케이크를 만들면서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면에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으며, 클라리사는 리차드의 파티를 계획하지만, 그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예 4-2> '케이크를 만들거야.' 마디 71-74

이처럼 '케이크를 만들거야'에서는 F장3화음과 A단3화음이 번갈아 나타나기도 하며 또한 이들 두 화음이 결합되어 하나의 7화음 즉 "F3⁴"로 나타남으로써 삶과 죽음의 내적갈등을 묘사한다. 이러한 7화음과 3화음의 관계는 앞의 곡인 '아침 패세지'에서 보여주었던 표면상의 Eb장3화음이 Eb장3화음과 G단3화음의 교대로 변형된 것과 동일하다. 즉, 표면상의 7화음은 두 개의 협화3화음, 즉 장3화음과 단3화음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죽은 이'(Dead Things)

이 음악은 버지니아를 방문한 언니와 조카들이 발견한 죽은 새 앞에서, 삶과 죽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버지니아의 심리상태를 그린다. 주제는 16마디의 전주 이후 마디 17에서부터 시작된다. <예 5-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주제는 '아침 패세지'의 주제와 음형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시작한다.

<예 5-1> '죽은 이.' 마디 17-24

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주제는 G단3화음에 Eb의 보조음이 결합된 표면상의 7화음인 “Eb[♯]”으로 시작한다(네모로 표시). 그러나 이 Eb[♯]은 G단3화음과 최대한의 공통음으로 연관된 Eb장3화음을 포함하고 있음이 변주를 통하여 나타난다. <예 5-2>는 변주 2와 변주 3의 시작 부분을 보여주는 예로, 이들 변주에서는 G단3화음과 Eb장3화음으로 변형되고 있다.

<예 5-2> ‘죽은 이,’ 변주 2와 변주 3의 시작부분



이러한 G단3화음과 Eb장3화음의 화성진행은 즐겁게 뛰어 노는 조카들의 웃음소리와 버지니아의 슬픔이 중첩되면서 나타나고, 또한 죽은 새를 통하여 버지니아가 느끼는 삶과 죽음의 대조적 세계를 표현한다.

‘그녀가 해야만 하는 것’(Something She has to do)

이 음악은 로라가 자살 시도를 위하여 아들 리차드를 버리고 호텔방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호텔에 도착하기 전 로라는 잠시 아들과 함께 만들었던 남편의 생일 케이크를 잠시 떠올리고 곧 이어 침대에서 소설 《델러웨이 부인》을 읽는다. 이 장면에서 로라가 케이크를 떠올린다는 것은 일상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며, 《델러웨이 부인》은 곧 자살을 상징한다. <예 6-1>은 ‘그녀가 해야만 하는 것’의 주제로, 자살을 앞두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의 가장 불안한 심정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예 6-1> ‘그녀가 해야만 하는 것,’ 마디 1-8



이 음악은 ‘케이크를 만들거야’에서 나타났던 F장3화음과 A단3화음이 결합된 표면상의 7화음으로 시작한다. 마디 1에서는 F장3화음이 뚜렷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베이스 E3의 역할은 모호하다. 표면상으로 볼 때, 마디 1-2와 5-6의 화음은 F를 근음으로 하는 F장3화음에 베이스 E3이 7음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E3은 D3으로의 해결을 요하는 불협화적 7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마디 5-6에서 베이스의 E3와 내성에서의 A3(동그라미로 표시)는 마디 7-8에서 내성의 8분음표 E2-A2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볼 때 마디 1-2와 5-6의 화음은 진정한 7화음이라기 보다는 F장3화음과 A단3화음의 결합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A단3화음과 F장3화음은 음향적으로 볼 때 삶과 죽음의 대조를 표현하며, 또한 이들 두 화음이 최대한의 공통음 관계와 반음진행의 관계에 있음은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로라의 심경을 표현한다.

<예 6-2>는 ‘그녀가 해야만 하는 것’ 중 마디 27-34를 보여주는 예로, 버지니아는 언니와 조카들과의 대화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서 여전히 소설 《델러웨이 부인》의 구상만을 생각하는 장면을 표현한다. 언니는 버지니아를 비롯한 조카들에게 두 개의 세상 즉, 현재 살고 있는 “세상”과 “소설” 안에서 버지니아가 살고 있다고 대변한다. 이때 이러한 두 개의 세상은 마디 31-32 즉 A단3화음과 F장3화음이 결합된 “F[♯]”으로 표현된다.

<예 6-2> ‘그녀가 해야만 하는 것,’ 마디 27-34



‘도피!’(Escape!)

이 음악은 클라리사 앞에서 리차드가 자살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예 7-1>은 ‘도피!’의 주제로, 리차드가 클라리사에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그녀의 삶을 살 것을 부탁하는 장면의 음악이다. 마약에 취해 있는 리차드는 클라리사와의 추억을 회상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 위하여 창문으로 이동한다. 리차드의 절망적인 인생을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주는 클라리사는 리차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간다. 이때 음악은 리차드의 절망적인 인생, 클라리사의 불안감, 그리고 삶과 죽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A단3화음과 F장3화음을 교대로 등장시킨다. 이때 마디 1에서 시작한 A단3화음의 4[♯]화음은 ‘케이크를 만들거야’의 마디 1-13에서처럼 E3-F3의 반음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갈등과 불안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결국 리차드는 5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한다. 이때 음악은 <예 7-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A단3화음의 4[♯]화음으로 표현된다. 마디 1-12에서와 달리 이 장면에서는 A단3화음만 나타날 뿐 F장3화음은 암시조차 되지 않는다. 리차드에게 있어 그의 자살은 삶의 마무리이자 클

라리사를 위한 결단이었으며, 이러한 리차드의 비극적인 결말은 A단3화음으로 묘사된 것이다. 그러나 A단3화음이 근음위치가 아닌 4화음의 불안정한 화음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리차드의 자살이 관객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죽음이며 또한 긍정적인 죽음이 아님을 암시한다.¹²⁾

<예 7-1> '도피!,' 마디 1-12

<예 7-2> '도피!,' 마디 27-30

'왜 죽어야 하는가?' (Why does Someone Have to Die?)

이 음악은 하루를 마감하는 로라를 표현한다. 로라는 가족들과의 생일파티 후 하루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예 8-1>은 이 음악의 전주부분으로 마디 1-12까지의 음악을 축약한 예이다. '시인의 행동'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 음악에서는 G단3화음의 연장 안에서 "Eb"가 표면상의 7화음으로 나타난다.

<예 8-1> '왜 죽어야 하는가?,' 마디 1-12

12) 마약에 취해 환상이 보인 상태에서 자살한 리차드의 비극적인 죽음은 이후 영화의 결말에서 보여지는 버지니아의 죽음과 대조를 보인다. 동일한 자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살은 각각 다른 의미를 보이며, 이러한 상이한 죽음의 의미는 음악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된다.

<예 8-2>는 마디 21-30을 보여주는 예로 이 곡의 주제에 해당한다. 이 음악에서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우울한 로라와 생일파티로 인한 남편의 행복감이 동시에 중첩되는 장면으로, 우울함과 행복의 상반되는 감정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하여 G단3화음과 Eb장3화음을 교대로 등장시킨다.

<예 8-2> '왜 죽어야 하는가?,' 마디 21-30

'삶을 선택하기' (Choosing Life)

이 음악은 아들 리차드의 부고를 듣고 클라리사 집에 찾아온 늘어버린 로라가 인생고백을 하는 장면이다. 절망적인 현실보다 삶을 택하기 위하여, 그녀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가족을 버렸으며, 따라서 그녀의 행동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숙명이었다고 고백한다. 즉,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선택은 후회하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인생을 회상한다. 이때 음악은 <예 9>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A단3화음과 F장3화음이 교대되면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장3화음과 단3화음의 교대는 로라의 회상을 통한 삶과 죽음의 대조뿐만 아니라 선택과 숙명, 현실과 삶, 그리고 후회와 인정 등의 대조까지도 표현한다.

<예 9> '삶을 선택하기,' 마디 29-40

‘디아워스’(The Hours)

로라의 고백 후 손녀와의 굿나잇 포옹은 이 영화에서 여러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영화의 전개 상 손녀와의 포옹은 하루를 마감하는 표현이며 또한 로라의 인생에서 볼 때에도 그동안의 인생에 대한 불안과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결론을 암시한다. 따라서 로라와 손녀의 포옹은 이 영화의 해피 엔딩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장면은 다시 이 영화의 첫 장면으로 되돌아가 버지니아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강물에서 자살하는 장면이 재등장한다. 이때 음악은 처음으로 F장3화음과 함께 시작된다(예 2 참조). 이때 F장3화음은 A단3화음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나타나며, 또한 기본위치로 등장하고 있음은 버지니아의 죽음이 비극적이지 않으며, 또한 삶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시작된다는 죽음에 대한 철학이 반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즉, F장3화음은 삶과 죽음의 갈등이 해소되어 해피 엔딩의 결말로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버지니아의 죽음은 A단3화음으로 근음위치가 아닌 4화음의 불안정한 화음으로 표현되었던 리차드의 자살 장면과 대조적이다.

버지니아의 자살 장면과 함께 영화의 영상이 끝난 후에는 클로징 크레딧(closing credits)이 올라가는데, 음악은 이전까지 등장하였던 음악이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앞에서 등장하였던 모호한 화성진행 즉 표면상의 7화음 보다 근음진행의 장3화음이 보다 더 비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3. 나가면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영화 《디아워스》에서 보여지는 삶과 죽음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분석을 통하여 재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표면상의 7화음은 공통음 관계에 있는 장3화음과 단3화음의 결합으로 구성된 화음이라고 판단한다. 이들 장3화음과 단3화음은 삶과 죽음의 대조를 표현하기 위하여 교대로 나타나기도 하며 혹은 7화음으로 결합되어 사용된다. 특별히 동일한 장면이지만, 영화의 오프닝에서는 모호한 표면상의 7화음이 나타나고 엔딩 장면에서는 장3화음이 강조되고 있음은, 삶과 죽음의 갈등이 영화의 결말에서 해소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음악이 영화의 내러티브에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영화음악의 연구는 영화음악을 제작하는 방법부터 영화음악의 역사와 역할, 그리고 분석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클래식 음악의 접근방법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 중에서 영화음악분석은 영화의 내러티브를 해석하는데 있어 유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분석을 통하여 영화의 내러티브를 해석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음악이론과 분석이 영화음악에 적용되어 의미있는 작업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영화음악 역시 클래식 음악과 마찬가지로 음악이론과 분석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영화음악이 음악분석의 레퍼토리로 적용되어 음악이론과 영화음악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져, 이들 간의 진정한 통합이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검색어

디아워스(The Hours), 음악분석(Music Analysis), 영화음악(Film Music), 배경음악(Background Music), 공통음(Common Tone), 장3화음(Major Triad), 단3화음(Minor Triad), 표면상의 7화음(Apparent 7th Chord), 글래스(Philip Glass), 델러웨이 부인(Mrs. Dallaway), 대조(Contrast), 내러티브(Narrative)

참고문헌

구경은. 『영화와 음악』.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6.

송희영. “영화의 내러티브 진행과 내적 세계의 구현으로서의 영화음악.” 『카프카연구』. 19(2008): 137-157.

이상윤. “영화의 주제음악의 형식적 관계성에 관하여: 영화 《디아워스》를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 40(2010): 257-288.

이수일. “Philip Glass의 영화음악 *The Hours*의 분석을 통한 미니멀리즘 음악 연구.” 『음악교육 공학』 7(2008): 147-172.

이재신. 『이재신의 영화음악론』. 서울: 해드림, 2013.

한상준. 『영화음악의 이해』. 서울: 한나래, 2000.

황진희, 이승연. “영화 《디아워스》(The Hours)에서의 인물심리와 화음진행의 상관관계.”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14/11(2014): 678-685.

Aldwell, Edward & Carl Schachter, *Harmony & Voice Leading* (Massachusetts: Shirmer, 2011).

Lehman, Frank. "Transformational Analysis and the Representation of Genius in Film Music." *Music Theory Spectrum* 35/1(2013): 1-22.

Murphy, Scott. "Transformational Theory and the Analysis of Film Music." In *The Oxford Handbook of Film Music Studies*. Edited by David Neumeier, 471-49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Neumeier, David. "Tonal Design and Narrative in Film Music: Bernard Herrmann's *A Portrait of Hitch* and *The Trouble With Harry*." *Indiana Theory Review* 9 (1998): 87-123.

_____ and James Buhler. "Analytical and Interpretive Approaches to Film Music (I): Analyzing the Music." In *Film Music: Critical Approaches*. Edited by Kevin Donnelly, 16-38.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1.

_____. *Meaning and Interpretations of Music in Cinem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5.

Rodman, Ronald. "'There's No Place Like Home': Tonal Closure and Design in *The Wizard of Oz*." *Indiana Theory Review* 19(1998): 125-43.

_____. "Tonal Design and the Aesthetic of Pastiche in Herbert Stothart's *Maytime*." In *Music and Cinema*. Edited by James Buhler, Caryl Flinn, and David Neumeier, 187-206. New Hampshire: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2000.

[영화] *The Hours*. DVD 태원엔터테인먼트, 2003.

ABSTRACT

Reinterpretation of *The Hours* through Music Analysis:
Narrative meaning of Major and Minor Triads

The paper examines some correlations between the narrative and music by analyzing the film music of *The Hours*(2002). First of all, I focused my attention to the apparent 7th chords, frequently shown in the music, and found the 7th chord is composed of the combination of common-tone related major and minor triads. Interestingly, the conflict of life and death, an important theme in the film, is expressed by the alternation of major and minor triads. Thus, the contrasting sound of major and minor triads can be related to the contrast of life and death, and the common-tone relation between major and minor triads also exp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and death.

국문초록

음악분석을 통한 영화 《디아워스》의 재해석:
장3화음과 단3화음의 내러티브적 의미

본 논문에서는 영화 《디아워스》(*The Hours*, 2002)의 음악을 분석함으로써 내러티브와 음악 간의 상호 연관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이 영화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면상의 7화음(apparent 7th chord)에 주목하였으며, 이 7화음이 영화가 진행될수록 공통음 관계에 있는 장3화음과 단3화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보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는 삶과 죽음이 이들 장3화음과 단3화음의 교대로 표현됨으로써 영화의 내러티브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즉 장3화음과 단3화음의 대조적 음향은 삶과 죽음의 대조를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최대한의 공통음 관계에 있음으로써 삶과 죽음의 연관성까지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